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등대 관리 및 활용 방안

† 강진갑

† 경기대학교 교수

Management and Utilization Method of The Light house as The Ocean Cultural Space

† *Kang Gin-Kab,*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요 약 : 등대의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등대를 친수공간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

핵심용어 : 문화재, 문화콘텐츠, 등대문화유산, 친수공간

KEY WORDS : *Cultural Heritage, Cultural Contents, Lighthouse Heritage, Hydrophilic space*

1. 서 론

2013년은 한국에서 근대 등대가 설치된 지 110년이 되는 해이다. 등대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설치된 항로표지시설임과 동시에 근대문화유산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역사적 자산이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유인 등대 중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등대를 등대 문화유산으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분리되어 해양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에 해양수산부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등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등대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등대를 문화재로서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등대의 문화예술콘텐츠로의 활용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본고는 해양수산부의 ‘등대 문화유산 기초 조사 및 등대박물관 DB 구축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이다. 본 과제는 2014년 4월까지 수행하는 과제이다. 본고는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한 글이다. 연구자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많은 질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2. 등대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방안

근대 등대가 한국에 처음 설치된 것은 1903년이다. 근대 등대는 설치된 이후 대한제국 선박의 항해보다는 일본을 포함한 외국 선박이 한국 항구를 안전하게 출입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한국이 해양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였고, 해양입국을 상징하는 문화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등대는 한국건축사에서도 의미 있는 근대건축물이다.

등대는 자연 경관도 뛰어나다. 등대는 방파제 등대처럼 육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등대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있다. 등대는 바다 어느 곳에서나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기에, 섬에서도 높고 사방이 막힘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등대의 불빛 역시 막힘이 없이 360도를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대가 위치한 곳은 경관이 뛰어나다. 따라서 등대 중 소매물도 등대, 오륙도 등대, 영도 등대, 여수 상백도 등대가 문화재 중 명승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등대는 자연경관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근대 등대가 도입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인 1915년 제주도에도 도대불이 나타난다. 지금도 제주도에 다수 남아 있는 도대불은 밤에 조업을 나간 어선들이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일종의 등대이다.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도대불의 명문에 1915년 건립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도대불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어청도 등대, 영산포 등대, 가거도 등대 등 10개의 등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영도 등대와 태종도 등대 등 4개의 등대는 명승지에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대문화유산도 주문진 등대 등 23개가 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과 해양수산부에 의해 관리되는 등대는 모두 30개이다. 양쪽에서 지정된 등대는 37개이지만 중복 지정된 것이 있기에 30개인 것이다.

등대가 가지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비추어 볼 때 등대의 문화재 지정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건립된 지 50년이 넘는 등대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등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 등대는 문화재보호법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등대는 건조물로서의 등대만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등대 동산 유물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 도대불도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등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등대문화유산의 등위와 종류를 포함하여 일부 조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등대의 친수공간으로의 활용 현황

그동안 등대는 친수공간으로서 다방면 활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경관이 수려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등대 중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부산 영도등대, 제주 우도등대, 인천 팔미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경남 소매물도등대, 강원 동해 묵호등대, 강원도 속초등대, 울산 간절곶 등대 등 8개의 유인등대를 '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하였다. '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된 등대는 주변 자연경관과 역사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된 테마에 맞춰 스토리텔링 등 각기 차별화된 콘텐츠가 가미하여 개발하고 있다. '등대 해양문화공간'은 정부가 등대를 해양예술진흥 및 해양교육, 해양 업무 홍보를 하고 해양 관광·레저·레포츠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해양문화공간에는 등대 테마공원을 조성되어 있으며 전시실, 홍보관, 전망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대를 스테이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덕도등대, 거문도 등대, 산지 등대 등을 개방하여 국민들

이 신청하면 1박2일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등대 해양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등대는 관광,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등대에 걷는 길을 조성하여 등대를 찾는 이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등대의 문화 예술콘텐츠로의 활용 방안

등대는 친수공간으로서 다방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술창작 소재로 본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등대라고 하면 많은 이들은 '희망' '어둠으로부터의 구제와 인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동시에 등대에서 일하는 '등대지기'는 매우 외롭게 일하기에 등대는 또한 '고독'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처럼 등대는 '희망'과 '고독'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연결 짓는 상징어이다. 따라서 등대는 예술 창작의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등대를 소재로 하는 영화, 드라마, 문학작품, 공연 및 시각 예술 작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영일 호미곶 문화예술축제와 같은 예술제와 등대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으로 등대가 국민들의 새로운 문화상징이 될 수 있도록 예술제와 문학제,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 정책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 중단기 계획을 세워 등대가 예술창작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맺 음 말

등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브랜드가치는 매우 크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시기에 등대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이다.

현재 필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등대문화유산 기초 조사 및 등대박물관 DB 구축 연구'를 의뢰받아 연구를 수행 중이다. 본고에서 제기한 등대의 문화재 관리 방안,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은 '등대문화유산 기초 조사 및 등대박물관 DB 구축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등대를 문화재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활용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 [1] 안웅희, 김형준, 한창수, 2005, 「제주도 유인 등대를 활용한 해양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29권 1호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 강창연, 「등대의 기원 제주 도대불」, 『어항』 2006년 봄호.
- [3] 신연철, 2010, 「우리나라 등대 해양 문화고아간 현황과 발전방안」, 『해양문화공간콘텐츠 등대 활용방안 세미나』, 국토해양부.